

자연이 주는 色 (색) 의 향연

갑갑하고 아쉬운 마음 가득한 요즘이다.
그러나 자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때로는
진홍빛 물결로, 때로는 청량한 녹색으로,
때로는 총천연색으로 생명력을 내뿜는다.
거대한 자연의 수레바퀴는 쉼 없이
굴러간다.



“

사람(人)살리는 녹색

고창 청보리밭과 상하능원

모두가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다. 곳곳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잘 자란
고창 청보리밭의 녹색은 그래서 더욱더 반갑다. 농촌 생활 체험 관광의 대명사
상하능원은 건강한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

아름다운 경관 자랑하는 고창 청보리밭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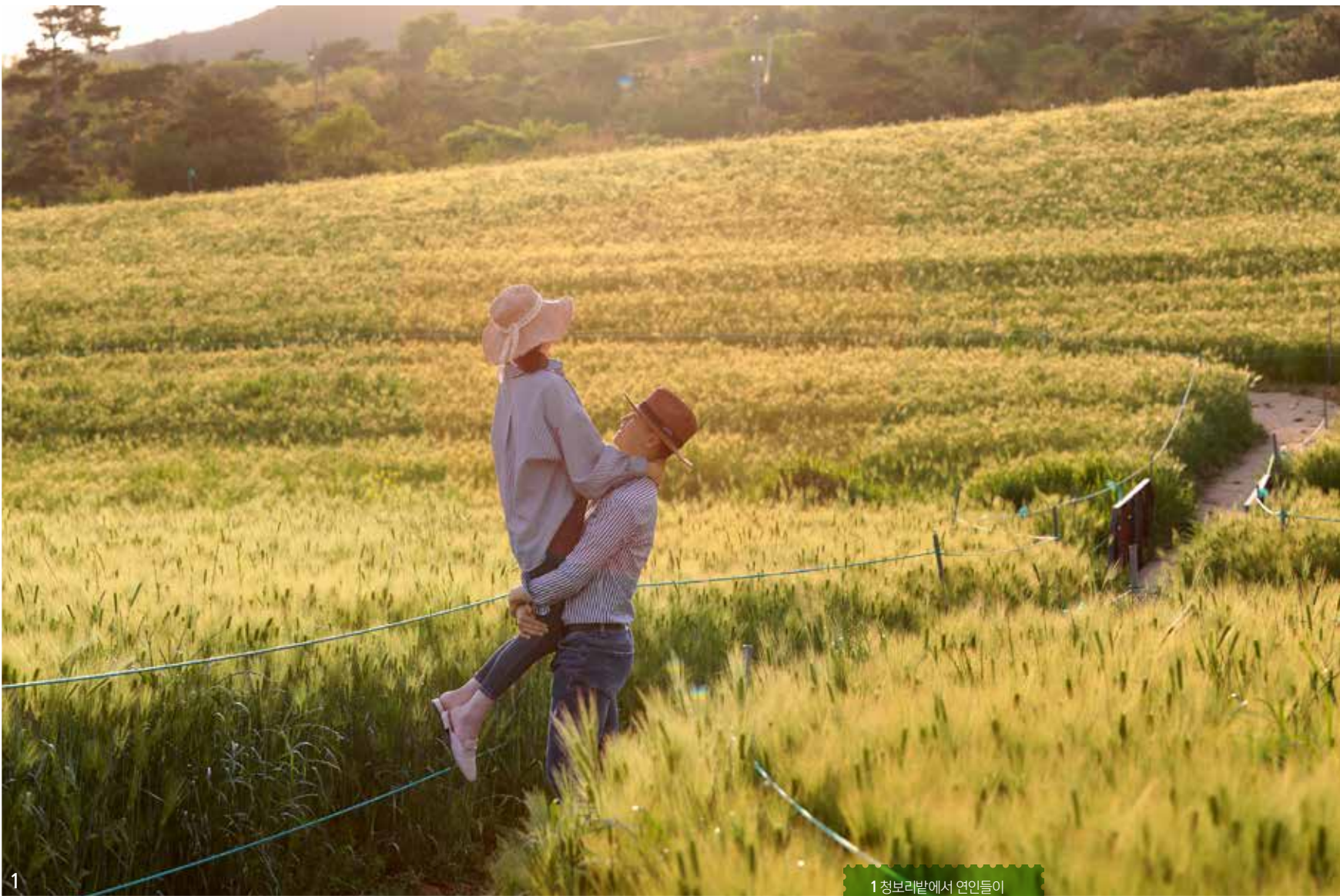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보지 않고
저녁놀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민 애창 가곡인 ‘보리밭’. 아동문학가이며 시인인 박화목(1923~2005)의 시에 윤용하의 곡을 붙인 가곡이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 속에서 싹을 틔운 보리는 춘궁기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조상들의 배를 채워준 소중한 존재다. 세상이 바뀌어 한동안 홀대를 받는가 싶었는데, 최근 관광과 접목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탁 트인 공간을 접하면 크게 감동한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 가운데 하나다. 트로트 가수 남진의 히트곡 ‘님과 함께’ 도입 부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상향이 나타나 있다.

녹색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전북 고창군 공음면





1

1 청보리밭에서 연인들이 추억을 남기고 있다.
2 익어가는 청보리
3 학원농장 진영호 대표

학원(鶴苑)농장의 청보리밭이다. 얇은 구름이 펼쳐내는 파노라마는 희색빛 빌딩에 갇혀 살던 사람들에게는 청량감을 선사한다. 끝 간 데 없이 이어지는 고창의 청보리밭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관이 된다. 이제 보리는 식량일 뿐 아니라, 주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전국 각지에 고창 학원농장을 본뜬 청보리밭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뽕나무밭에서 보리밭 농원으로

학원농장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무총리를 지냈던 진의중 씨가 1960년대 초 개발되지 않은 야트막한 야산을 개간해 농장으로 조성했다. 학원농장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옛 이름인 황새골에서 따 왔다. 1960년대에는 당시 유행하던 뽕나무가 가득 찬 농장이었다. 이후 1970년대에는 목초를 재배해 한우 먹이로 활용했다. 1980년대에는 보리, 수박, 땅콩 등이 재배됐다.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진 전 총리의 장남 진영호 씨가 40대 초반의 나이에 귀농하면서부터다.

대기업에서 이사직까지 올랐던 진 대표는 농업에 대한 뜻을 버리지 못하고 1992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귀농해 보리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가꾼 결과 청보리밭은 이제 우리나라 대



2



3

표적인 경관 농업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됐다. 학원농장을 비롯한 100만㎡ 규모의 보리밭은 2004년 경관농업특구로 지정됐다.

매년 방문자가 늘어 지난해 청보리밭 축제에는 44만여 명이 찾아왔다. 학원농장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행사장에서 체험과 먹거리 부스를 열어 수익을 나눈다. 덕분에 진 대표는 2013년 금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축제가 취소됐지만, 청보리밭의 풍경에 이끌린 관광객의 방문은 이어졌다. 올해 방문객은 10만여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식당에서는 보리밥을 맛볼 수도 있다. 출입구에서는 고창군에서 고용한 안내 인력들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출입시켰고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었다. 보리의 싱그러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온 아마추어 사진작가와 관광객들로 붐볐다. 그들은 망거미가 질 때까지 카메라 삼각대를 고정한 채 지평선 너머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진 대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농장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잔일을 했다. 보리밭 한가운데서 작업하던 그를 만났다. 진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 보릿고개와 유사한 체험을 하는 듯해서 안타깝다”면서 “조상들이 보리로 춘궁기를 넘겼듯, 관광객들이 보리밭을 보며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기농의 아침 상하농원

과거 고창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고인돌 공원 등 전통적인 관광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에서 주목을 받는 여행지는 청보리밭과 상하농원이다. 유기농 먹거리를 생산하는 상하농원은 고창군과 농림축산식품부, 매일유업이 합자해 만든 유기농 농업법인이자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1



3



2

1 상하공원에 조성된 보리밭 2 지역 농부들의 얼굴이 크게 내걸린 파머스 마켓 3 자연 방사된 닭들이 계란을 낳은 모습 4 디지털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장치를 목에 단 젖소가 유기농 건초를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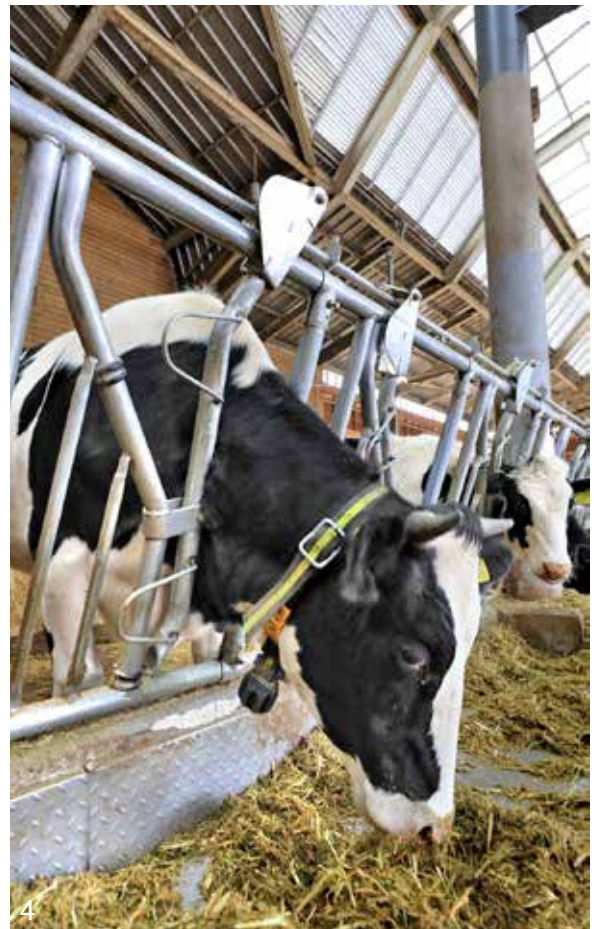
상하농원 개발은 농민과 정부, 지역자치단체가 동반 성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기획됐다. 그러나 막상 문을 연 것은 8년이 지난 2016년이 되어서였다. 그만큼 준비에 공을 들였다. 건물 디자인과 동선 등도 미적 관점을 빼놓지

않고 고려했다. 건축과 디자인을 총괄한 김범 설치미술가 등이 건물 한 동 디자인에 3년을 고민했을 정도다. 덕분에 하나둘씩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이 만든 당연한 결과였다.

상하농원은 평일임에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예쁘게 디자인된 뽕죽지붕의 건물이 방문자를 맞이한다. 지역 농부들이 생산한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이다. 건물 내부에는 환하게 웃는 지역 농부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밑에는 신선한 먹거리를 사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한 자리에서 농촌 체험과 식사·숙박까지

파머스 마켓의 출입구를 지나면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은 푸른 청보리밭이다. 규모는 학원농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았지만, 지역민과 기업이 가꾸기는 녹색의 꿈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청보리밭 뒤쪽의 화단에는 양증맞은 모습의 프렌치 라벤더가 활짝 피어 있다.



4

10만㎡ 규모의 상하농원 내부에는 유기농 방사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장을 비롯해 유기농 사료와 건초만을 먹는 젖소를 기르는 외양간 등 다양한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건강한 유기농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도 여러 군데 있다. ‘빵 공장’, 비엔나소시지와 햄, 프랑크 소시지 등을 생산하는 ‘햄 공장’, 장류를 생산하는 ‘발효 공장’ 등 다양한 공장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또,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동물농장이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양과 새끼 염소 등이 뛰노는 동물농장에선 직접 홍당무 등을 먹일 수 있다. 다양한 메뉴의 식당 중에서 양식당인 상하키친을 찾았다.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야채를 재료로 한 피자라고 한다. 때가 때인지라, 레스토랑 내부보다 바깥 테라스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늘막 아래 나무 테이블에 앉아있으니 피크닉을 온 듯했다. 잠시 후 나온 피자는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피자보다 맛났다. 이것이 신선한 음식 재료의 힘인가보다. 농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신선한 유기농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일본 홋카이도에서 맛보았던 것처럼 싱싱하고 달콤했다. 상하농원은 단순한 1차 농산물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2차 산업)과 유통·서비스·관광(3차 산업)까지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국형 6차 산업’의 농어촌 테마공원이다. 숙박시설인 파머스 빌리지가 2018년 개관한 데 이어 품격 있는 휴식을 콘셉트로 한 야외수영장과 스파도 연내 차례로 문을 연다. 파머스 빌리지는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정결함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내부 집기는 화려하지 않게 나무에 페인트 색을 칠했고, 편의성을 최대한 살렸다.



동물농장에서 한 어린이가 염소에게 홍당무를 먹고 있다.



1 간결하지만 세련된 파머스 빌리지의 객실 테라스
2, 3 파머스 빌리지의 조식 4 상하키친의 피자
5 류영기 대표가 상하농원의 운영 철학을 설명하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신선한 유기농 음식 재료로 만든 조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식에서 나온 음식 가운데 눈에 띄는 것 하나는 갈색의 베이컨이었다. 보통 시중 베이컨은 붉은색 색소가 첨가돼 있지만, 이 베이컨은 그렇지 않았다. 또 한가지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자연 방사 계란이다. 농원 내부에서 자유롭게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인데 계란 노른자에 진한 붉은 색이 많이 첨가돼 주황색에 가까운 노른자였다. 식품 및 생명공학 분야를 전공한 류영기 대표의 안내를 받아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닭들을 보았다. 류 대표는 “자연 방사 계란은 비타민E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월등히 많아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음식에서 느낀 상하농원의 인상은 진한 오렌지색의 노른자만큼 깊이 남았다. ▼

inf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올해 열리지 않지만, 무료 출입이 가능하다. 학원장은 6월 중순 수확을 마치지만, 상하농원의 청보리밭은 7월까지 만날 수 있다. 상하농원은 입장료가 8천원이다. 밀크 빵과 소시지 만들기 체험은 각각 1만5천원이다. 상하농원은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목줄은 필수.

“

계절의 축복

황해산 철쭉 군락

수십만 평 고원에 펼쳐진 분홍빛 철쭉꽃 웅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꽃송이가 바람에 일렁이며 빚어내는 색의 향연은 자연만이 선사할 수 있는 축복이다.

글 현경숙 · 사진 조보희 기자

”





고 있다. 해가 갈수록 철쭉 군락은 장관을 더할 것이다.

철쭉 군락의 명성이 퍼지면서 황매산을 찾는 탐방객과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 곳의 철쭉제가 모두 취소됐다. 축제는 열지 않지만, 산청군은 5월 9일부터 황매산 개방을 시작했다. 개방 당일 내렸던 비가 그치자 이튿날인 10일 하루에만 황매산을 찾은 탐방객이 1만여 명에 이르렀다.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은 1천800여대였다. 지난해 축제 기간에는 20여만 명이 방문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은 평일이었는데도 탐방객과 관광객이 꽤 있었다. 특히 마지막 봄꽃의 향연이라는 철쭉 군락을 렌즈에 담으려는 사진작가들이 적지 않았다. 기암 괴석 중 하나인 탕건바위 벼랑 끝에 위태롭게 앉은 사진작가들이 멀리서도 보였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의 이로움 중 하나는 체력이 약하거나 거동이 좀 불편하더라도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락지 코 밑까지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이 잘 닦여 있고, 주차장이 여럿 설치돼 있다. 물론 탐방객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장이 매우 혼잡스럽다. 군락지 바로 아래에는 황매산미리내파크가 있다. 미리내파크에서부터 군락지까지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돼 있다. 장애인들도 군락지를 방문할 수 있게 만든 나눔길은 데크길, 흙콘크리트길, 전망데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는 풍광이 빼어난 명승지가 높은 산이나 그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거나 체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명승지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고, 그 기쁨을 누리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근래 전국 곳곳에서 관광 개발

1, 2 미리내파크에서 바라본 황매산 정상
3 미리내파크에서 철쭉 군락으로 이어진 데크 길 4 철쭉 군락지 중간에 있는 돌팍샘. 이 물을 마시거나 밟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야생 철쭉꽃이 빚어낸 분홍 물결

자연의 큰 선물 중에는 봄의 신록, 가을 단풍, 그리고 갖가지 꽃들이 뿔어내는 강렬한 색이 있다. 황매산 철쭉 군락의 물결치는 분홍 꽃들도 가장 아름다운 색의 향연 중 하나다. 해마다 4월 말, 5월이면 황매산에는 능선과 산록에 수십억, 수백억 송이 철쭉꽃이 피어난다. 하늘 아래 이렇게 많은 꽃이 한꺼번에 필 수 있을까. 경이로울 만큼 꽃들의 바다를 이룬다. 황매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분홍빛 비단 이불이 산을 포근히 덮은 것 같다.

황매산은 높이가 1천108m에 이른다. 높은 산이다 보니 정상 부근의 바람이 여간 세지 않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바람 따라 끝없이 출렁이는 수많은 꽃송이에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씩 없는 삶 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아우성치는 인간의 얼굴들 말이다. 그만큼 철쭉 군락은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이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에는 3대 철쭉 명산이 있다. 지리산 바래봉, 소백산, 황매산이다. 세 곳의 철쭉 군락이 풍기는 멋은 제각각 다르지만 모두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워 매년 철쭉제가 열린다. 황매산 철쭉 군락지는 행정구역상으로 경상남도 산청군과 함천군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다. 산청군은 철쭉이 잘 자라게 키 큰 잡목들을 베어주고 있다. 그 때문에 황매산 철쭉 군락은 계속 커지





1, 3 철쭉 군락과 그 사이로
난 데크길 2 황매산 정상과
복원된 옛 산성



이 경쟁적으로 진행되면서 명승지 접근성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몇 가지 사례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으나 관광 개발의 일차적인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반갑다. 우리나라의 관광 개발도 이제 ‘인간의 얼굴’을 갖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틀리지 않길 바란다. 해발 1천m 넘는 고산 준봉을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복이 아닐까.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다. 물론 관광 개발이 환경을 파괴하거나 자연의 조화를 깨뜨려서는 안 되겠다. 자연 친화적, 인간 친화적이길 기대한다. 미리내파크에서 출발하면 정상까지 대부분의 구간이 나무 데크 길이 조성돼 있다. 황매산은 평평한 고원에 큰 바위산이 우뚝 솟은 모양이어서 정상 가까이 갈수록 경사가 가파르다. 그러나 나무 데크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오르는 데 큰 위험이 없다. 자신의 체력에 맞는 속도로 참을성 있게 오르기만 하면 된다. 두어살 먹은 아이를 안고 정상까지 올라온 부부가 눈에 띄었다.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 황매산

황매산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준봉이라고 일컬어진다. 태백의 장엄한 기운이 남으로 치달아 마지막으로 큰 흔적을 남긴 곳이 황매산이라는 것이다. 황매산이라는 이름은 정상에 올랐을 때 주변의 풍광이 매화꽃을 닮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누런 땅의 색을 한 매화, 즉 황매화의 산이라는 뜻이다. 정상에 서면 매화꽃 속에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황매산은 경남 산청군 차황면과 경남 합천군 대병면, 가회면에 걸쳐 있다. 장관을 연출하는 기암괴석으로 인해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정상 부근에 펼쳐진 드넓은 평원은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 촬영지였다. 고인이 된 최진실 씨가 열연했던 '은행나무2-단적비연수'의 촬영 세트도 이곳에 있다.

황매산은 지리산 천왕봉과 웅석봉, 필봉산, 왕산 등 인근 명산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정상이 아니라 기슭에서도 천왕봉이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데, 천왕봉에서도 황매산을 볼 수 있다. '황매산에서 바라본 천왕봉' '천왕봉에서 바라본 황매산' 사진을 찍어 '이매진'에 나란히 편집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 같다. 그렇게 하려면 천왕봉에 올라야 한다. 마침 산청에는 천왕봉을 그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등산 코스가 있다. 시천면 중산리에서 올라가는 산행길이다. 편도에만 4~5시간 걸리는 가파른 너덜길이라 아쉽지만 오르는 다음을 위해 남겨놓기로 했다.

황매산은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에 빙 둘러싸여 있지만, 독립적으로 우뚝 솟아 명산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 위낙 이름난 산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산청 주변의 교통이 좋아지면서 새로 주목받고 있다. 황매산은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도운 무학대사가 수도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무학대사는 자신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산을 오르내리는 어머니가 뱀에 놀라고, 찰넝쿨에 걸리고, 땅가시에 긁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100일 기도를 해 세 가지가 서식하지 못하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황매산은 뱀, 찰, 땅가시나무가 없어 '삼무'(三無)의 산으로 불린다.

이곳의 또 다른 장관은 다랭이논이다. 인근에 하천이 없는데 논마다 물이 가득하고, 5월 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일부에는 이미 모가 심겨 있었다. 잘 다듬어진 수로에는 맑은 물이 팔팔거리며 힘차게 흐르고 있다. 모두 황매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황매산이 큰 산이다 보니 계곡을 흘러내리는 수량이 풍부하다. 이곳 다랭이논의 특

징은 계단식 논을 만들기 위해 쌓은 돌 축대다. 계곡에서 옮겨왔을 직한 커다란 돌로 차곡차곡 축대를 쌓았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 텐데 얼마나 견고한지 흐트러진 돌이라곤 하나 눈에 띄지 않았다. 한뼘의 농토를 일구기 위해 바위만 한 큰 돌들을 옮기느라 선조들이 흘렸을 피땀이 눈물겹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소중한 역사(役事)다.

황매산 계곡과 기슭에 흐르는 맑은 물줄기 주변에는 신촌, 만안, 상법 등 세 개의 마을이 있다. 신촌 마을은 형성 연대가 조선 초, 1440년대까지 올라간다. 산골 다랭이논이지만 물이 풍부하고 논 사이사이에 길이 잘 닦여 있어 농사가 꽤 될 것 같다. 이곳에서는 '메뚜기 쌀'이 재배된다. 농약을 치지 않아 메뚜기가 사는 논에서 자란 쌀이라는 뜻이다.



1 정상으로 가는 길 중턱에서 내려다본 황매산. 데크길 왼쪽은 합천군, 오른쪽은 산청군이다.
2 정상으로 이어진 데크길 3 황매봉 표지석





1,2 다랭이논과 논두렁 돌축대
3 정취암 4 성철스님 생가



‘당일 코스’로 다가온 천왕봉 산행

백두산에서 힘차게 뺏어내린 백두대간은 지리산 천왕봉에서 그 위용을 마무리한다. 천왕봉은 주변에 높고 수려한 명산을 거느리는데 산청은 그 산들에 둘러싸여 있다. 지리산은 경남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도, 5개 시·군에 걸쳐 있어 정상인 천왕봉에 오르는 등산길이 다양하다. 이 중 산청군 중산리에서 출발하는 코스가 가장 짧는데 요즘 지리산 애호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뚫린 뒤 산청은 자동차로 서울에서 3시간, 부산·광주에서 2시간, 대전·대구에서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가 됐다. 어디서든 새벽 일찍 출발해 산청을 통과하면 천왕봉에 오른 뒤 당일 귀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인들이 좀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천왕봉 등산이 당일 코스가 된 것이다.

산청은 산, 물, 인심이 많아 ‘삼청’(三淸)이라고 일컬어진다. 지리산 청정지역으로 이름나 개발 관련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 이렇다 할 산업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산청은 깨끗하고 아름다워 볼거리가 적지 않다. 기암절벽에 자리 잡은 정취암은 신라 때 창건된 고찰이다. 정취암 바위 끝에서 하계를 내려다보는 조망은 시원함과 적막감으로 속세를 벗어난 느낌을 준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법어를 내려 온 국민의 불심을 일깨웠던 성철 스님 생가터에는 사찰인 겁외사가 건립됐고, 생가가 복원돼 있다. 인근 경호강을 따라 성철 스님 순례길이 조성돼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화를 재배했던 목면시배유지에는 문익점 선생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다. 조선 초까지만 해도 엄동설한에 걸칠 것이라곤 삼베, 칩으로 짠 갈포밖에 없어 얼어 죽는 민초가 많았다. 삼베는 여름에 시원하지만, 기온이 떨어지면 옷감이 바스라지고, 보온성이 없다. 선생은 고려 말 중국 원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목화씨를 들여왔고, 목화를 개량해 전국적으로 이를 보급했다. 덕분에 우리 의복사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600년 전 선조의 은혜가 따사롭다. ▼

“

바다와 수목이 어우러진 서해안의 푸른 보석

태안 천리포수목원

태안반도 끝자락에 자리 잡은 천리포수목원은 자연이 빚어내는 다채로운 빛깔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갖가지 꽃과 나무가 푸른빛을 머금은 바다와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선사한다.

글 김희선 · 사진 전수영 기자

”



1



3



4



5



2

‘색의 마술사’ 삼색 참죽나무

정문 입구에서부터 독특한 빛깔의 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회색빛이 감도는 줄기에 오묘한 핑크빛 잎사귀가 가득 달려있다. 천리포 수목원의 명물 중 하나인 삼색 참죽나무(참죽나무)다. 참죽 나무의 일종인데 계절에 따라 세 가지 색상으로 변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다. 봄이 되면 쪽 뽕은 줄기에서 짙은 자줏빛 새순이 돋아난다. 이 빛이 점점 열어지면서 초여름 잎사귀는 노란 색으로 변하고, 한여름이 되면 색이 짙어져 평범한 초록색으로 바뀐다. 수목원을 찾았던 5월 중순의 잎새는 자줏빛이 열어지고 노란빛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오묘한 붉은빛을 띠었다. 이때쯤이 가장 아름다운 빛깔을 뽐내는 시기일 것 같다. 신기한 것은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참죽나무의 색이 해풍이 부는 곳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태안 내에서도 바닷바람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오묘하게 변하는 빛깔을 관찰하기 힘들다고 한다.

- 1 새하얀 꽃이 만개한 꽃산딸나무 ‘알바 플레나’ 너머로 여유롭게 수목원을 즐기는 탐방객
- 2, 4 수목원 중앙에 조성된 큰 연못. 여름에는 수련이 가득 피어 장관을 선사한다.
- 3 계절에 따라 색이 변하는 삼색 참죽나무 ‘플라밍고’
- 5 꽃잎 무늬가 독특한 아이리스(붓꽃)의 한 종류

희귀종 가득한 식물의 천국

천리포수목원은 1만6천여 분류군의 식물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민간 수목원이다. 국내 최대 식물 종을 보유한 수목원답게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희귀 식물이 곳곳에 가득하다. 수목원에 들어서면 넓은 연못이 눈 앞에 펼쳐지고 주변으로 갖가지 꽃이 저마다 빛깔을 뽐낸다. 보랏빛 아이리스(붓꽃)와 알리움, 노란 창포, 진분홍빛 모란, 순백의 산딸나무꽃과 난생처음 보는 검은 튤립까지. 수목원에서는 어떤 색이든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름에는 형형색색의 수국과 작약, 수련과 연꽃 등이 곳곳에 피어 수목원을 더욱더 화려하게 수놓는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복숭아 빛깔의 만병초였다. 5월부터 6월까지 수목원 곳곳을 장식하

는 꽃 중 하나다. 생김새가 철쭉과 비슷하지만, 가지 끝에 커다란 꽃이 10~20송이씩 둥글게 뭉쳐 피어 훨씬 더 화려하고 탐스럽다. 만 가지 병을 다스리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만병초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고 한다.

연못을 따라 좀 더 걸어가니 하얗게 꽃을 피운 산딸 나무가 나타났다. 산딸나무 꽃은 십자가 꽃으로도 불린다. 개화 전 하나로 붙어있던 꽃잎이 십자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꽃잎 끝에 못을 박았던 흔적처럼 멍든 것 같은 자국이 남기 때문이다.

연못 왼쪽의 동백원에는 동백 꽃송이들이 주변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반쯤은 땅에 떨어졌지만, 반쯤은 여전히 가지 끝에 매달려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다. 겨울꽃으로 알고 있던 동백이 5월 중순까지 피어 있어 신기했다. 바다와 접한 천리포수목원은 연중 온화한 해양성 기후 덕분에 1~2월에는 꽃이 일찍 피고 3월 이후에는 다른 지역보다 꽃이 늦게 피어 봄을 더 길게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보통 1월부터 피기 시작해 3~4월이면 지는 동백꽃도 이곳에서는 12월부터 피기 시작해 4~5월 절정을 이룬다. 운이 좋으면 6월까지도 동백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동백은 개화도 아름답지만, 낙화가 더 신비한 꽃이다. 수정을 마치면 꽃잎이 시들기도 전에 꽃송이째 툭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일까. 절정의 시기 눈물처럼 툭툭 떨어진 꽃송이들은 나무에 달린 꽃보다 더 아름다우면서도 처연해 보인다. 동백은 목련과 함께



3

1 꽃산딸나무 '알바 플레나'
2 분홍빛 만병초 3 큰 연못 위로
버드나무가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다.



1



2



1



2



3



4



5



6



7

8

1 먹이를 문 채 나뭇가지 위에 앉은 수컷 딱새 2 매화철떡이풀 '스프링 심포니' 3 헬레보루스 4 진분홍빛 모란 '자운전' 5 유케라 6 민병갈 기념관 앞의 논. 매년 5월 하순 전통 방식으로 손 모내기을 하고 가을에 수확한다. 7 5월 중순 꽃을 피운 자목련 8 수목원 벤치에 화분으로 만든 인형이 앉아있다. 9 설립자 고 민병갈 박사의 흉상

천리포수목원이 자랑하는 수종이다. 수목원이 보유한 동백은 900여 분류군에 달한다. 흔히 접하는 붉은 동백꽃뿐 아니라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의 동백을 만날 수 있다. 동백도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천리포 수목원을 대표하는 꽃은 목련이다. 전 세계에 1천여 분류군의 목련이 있는데, 이 중 800여 분류군을 보유하고 있다. 목련이 절정을 이루는 4월에는 목련축제가 열린다.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목련원도 이때만큼은 관람객들에게 문을 연다. 아쉽게도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축제가 열리지 못했다. 목련은 대개 3월이나 4월 새하얀 꽃을 피웠다가 이내 꽃잎을 떨궈버린다. 가을 즈음 맺기 시작한 꽃봉오리를 가지 끝에 매달고 겨울을 나지만, 정작 개화 기간은 며칠 되지 않아 아쉬움을 더하는 꽃이다. 하지만 다양한 재배품종을 보유한 천리포 수목원에서는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도 목련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방문했던 시기에도 분홍색 목련, 노란색 목련 등 주변에서 보기 힘든 빛깔과 형태의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린 상태였다. 여름에 피는 목련인 리틀젼 태산목도 있다. 6월 말 꽃을 피워 날씨가 좋으면 가을까지도 개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5월 중순이라 아직 터지지 않은 태산목의 꽃봉오리는 보송보송한 솜털로 싸여 있었다. 두툼한 잎사귀의 뒷면 역시 마치 스웨이드처럼 갈색 털로 덮여 있다. 가을에 맺은 꽃봉오리와 푸른 잎을 가지에 매단 채 차디찬 겨울을 보낸다고 하니 솜털은 추위를 견뎌내기 위한 월동복인 셈이다.

“나무가 행복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리틀젼 태산목이 서 있는 곳은 천리포수목원의 설립자인 민병갈 박사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 민 박사는 생전에 “내가 죽으면 묘를 쓰지 말라. 묘 쓸 자리에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2002년 작고 당시 수목원 측은 고인의 유해를 수목원 비공개지역에 안치했다가 서거 10주기인 2012년 고인이 특히 아꼈던 리틀젼 태산목 아래로 옮겼다. 1945년 미군 정보장교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민 박사는 1979년 귀화해 한국은행 고문 등을 지낸 ‘푸른 눈의 한국인’이다. 1962년 만리포 해수욕장에 놀러 왔다가 주민의 요청으로 이 지역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것이 60만㎡(18만평)로 불어났고, 1970년부터 나무를 심으며 수목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땅을 조금만 파도 염분 섞인 흙이 나오던 박토를 가꾸고,



9



2

외국에서 다양한 묘목과 종자를 들여와 심으면서 2000년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으로 인증받았다. 세계에서 12번째, 아시아에서는 최초였다.

민 박사의 나무 사랑은 유별났다고 한다.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나무를 다듬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목원 직원들은 "나무를 지켜만 줄뿐 주인 노릇을 하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다. "나무가 행복하면 그곳에 오는 사람도 더불어 행복해진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재단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여느 수목원과 달리 천리포수목원이 자연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설립자의 신념이 이어져 내려온 덕분이다.

고인의 흉상 옆에는 그가 처음 발견해 널리 알려지게 된 완도호랑가시나무가 있다. 성탄절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호랑가시나무의 붉은 열매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의 징표인 '사랑의 열매'의 원형이기도 하다. 완도호랑가시나무는 민 박사가 식물 탐사하러 갔다가 완도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감탕나무와 호랑가시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교잡되어 유전자가 고착된 것이다. 천리포수목원은 교육·연구 목적 이외에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었던 '비밀의 정원'이었지만, 2009년부터 빗장을 풀고 약 60만㎡(18만평)에 달하는 7개 관리지역 가운데 6만6천㎡(2만평) 규모의 '밀려가든'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설립자가 사용했던 수목원 내 집무실은 카페와 갤러리 등을 갖춘 민병갈 기념관으로 바뀌었고, 그와 직원들이 거처로 썼던 기와집은 방문객을 위한 숙소로 사용된다.

초가집 모양의 민병갈 기념관 2층에 올라가면 수목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수목원 중앙의 큰 연못은 척박했던 토양에 물을 대기 위해 인공으로 조성한 것이다. 6월이 되면 형형색색의 수련이 한가득 피어나 장관을 이룬다. 기념관에서 내려와 나무가 무성한 숲길을 지나니 고운 모래펄

June 2020



3 4



1 나무가 무성한 '우드랜드'
2 아이리스 포네안타 3 붉은상록풍년화
4 노란 아이리스(붓꽃) 5 클레마티스
'엘리자베스' 6 보랏빛 아이리스(붓꽃)

5 6



1 역새원 옆의 작은 연못가에 삼색
참죽나무 '플라밍고'가 들어서 서 있다.
2 코리아플라워파크에 만개한 노란 백합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한쪽에서는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반대편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와 함께 꽃내음이 풍겨온다. 고운 빛깔의 수목과 청량한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천리포수목원의 매력이다. 바다를 향해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는 노을언덕에서는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더욱 아름다운 것은 수목원을 마주하고 떠 있는 조그만 섬 덕분이다. 낭새섬이라 불리는 이 섬 역시 천리포수목원의 소유지다.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에 두 번 바다가 갈라지면서 섬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2시간 정도면 섬까지 걸어갈 수 있지만, 비공개지역이라 아무나 섬 안에 들어갈 수는 없다.

‘꽃과 바다’의 도시 태안

태안은 ‘꽃과 바다’의 도시로도 불린다. 천리포수목원 외에도 형형색색의 꽃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많다. 남면에 있는 청산수목원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봄에는 붉은빛이 매력적인 홍가시나무 축제, 여름에는 연꽃 축제와 꽃창포 축제, 가을부터 초겨울까지는 팜파스 축제와 핑크몰리 축제가 열린다. 꽃지해수욕장에는 튤립 축제로 유명한 코리아플라워파크가 있다. 4월부터 5월 초까지 만개하는 튤립이 지고 나면 알리움과 백합, 루피너스 등이 알록달록 공원을 장식한다. 6월 2일 봄꽃 축제가 끝나면 6월 5일부터 일주일간 튤립 구근 캐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각종 허브꽃과 야생화를 볼 수 있는 팜카밀레, 안면도 자연휴양림 인근에 조성된 안면도 수목원 등이 있다. ▼

inf

천리포수목원

주소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길 187

개장 시간

하절기(4~10월) 09:00~18:00(입장 마감 17:00)

동절기(11~3월) 09:00~17:00(입장 마감 16:00)

여름 연장 운영(7월 18일~8월 15일)

09:00~19:00(입장 마감 18:00)

입장 요금 3~11월 성인 9천원, 청소년 6천원, 어린이 5천원
12~2월 성인 6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